

서갑원(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1차 구술

1. 구술자: 서갑원
2. 면담자: 강희영
3. 촬영자: 박성수
4. 구술일자: 2012년 2월 21일
5. 구술장소: 서울 종로구 소재 카페
6. 구술분량: 08분 17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1992년 대선 당시 ‘2030 물결유세단’ 활동

구술자 : 예. 그러니까 구십사(94). 구십이(92)년 총선 끝나고 그때 부산에서 삼(3)당 합당 이후에 꼬마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이 합당을 해서 통합민주당이 됐죠¹⁾. 통합민주당에 후보로 부산 출마하셔서 낙선하시게 되고.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선대, 선거대책본부가 꾸러지면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청년특별위원장을 맡게 되시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광재 의원 한 사람만 비서로 남아 있었는데 한 사람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서, 한 사람 더 필요하다 이렇게 논의가 돼서 제가 비서로 오게 됐습니다. 구십이(92)년 그때가 한 유(6)월말? 칠(7)월초? 그때였던 거 같아요. 그때 이제 두 군데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여의도에 서린빌딩에 작은 사무실, 낙선하고 뭐 낙선하시고 이 그 집기들 책들 자료들 다 함께 해서 노무현 후원회라고 후원회 사무실을 여의도에 서린빌딩에 작은 사무실을 하나 갖고 계셨는데. 그 사무실이 이제 우리 공식적인 사무실이었죠. 그 다음에 일은,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 여의도백화점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민주당에 청년특별위원장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리 인제하고 뭐 사무실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계속 밖에 다녔지만 어쨌든 두 곳의 사무실을 두고 왔다갔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조직, 정당조직의 선거조직인데 청년, 여성 뭐 또 노동자 이런 조직 이런 그 대상들을, 각 부분별 대상들을 아우르는 그 위원회가 구성돼있었죠. 그중에서도 청년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사십(40)

1) 3당 합당에 반대한 통일민주당 잔류 의원과 박찬중, 이철 등 무소속 의원에 의해 1990년 6월 18일 창당된 민주당은 통칭 꼬마민주당으로 불리었으며, 1991년 9월 16일 평화민주당 후신인 신민주연합당(신민당)과 합당 시 당명은 민주당으로 하였다. 구술자는 전자를 꼬마민주당으로 후자를 통합민주당으로 말하고 있다.

대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직화하고 또 선거에 참여시키고 지지를 끌어내는 그 위원회인데. 사실 대선, 정당조직에서도 그렇고 대선조직 당시에 특히 디제이(DJ),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연세도 많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우리 당으로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청년 학생들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또 그 지지가 강해야만 또 우리가 집권할 수, 그 지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율을 높여야만 집권 가능성이 더 있었던, 더 있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비중이 더 컸죠.

나중에 이제 그 청년특별위원회에서 사실은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지금은 뭐 그 세대구분을 뭐, 뭐 하죠. 이공삼공(2030)세대 또 뭐 삼팔육(386) 또 사팔육(486) 그런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나중에 엑스(X)세대, 엔(N)세대 뭐 많이 그 세대구분이 나오지만은 그걸 슬로건(Slogan)화 해서 했던 게 아마 그게 첨인 거 같아요. ‘출발 이공삼공(2030).’ 그래서 출발 이공삼공(2030) 물결축제, 물결유세. 이게 구십이(92)년 대통령선거 때 청년특별위원회에서 기획해서 꾸렸던 유세단입니다²⁾. 그게 우리 한국 선거사에서 획기적인 거였어요. 처음 있는 시도였는데 그때도 그랬고 그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때도 그랬었지만은 (이전에는) 정당후보자들이나 정당에서 연설을, 대규모 군중들을 어디 여의도광장이나 보라매공원이나 또 그전에 옛날에 한강 백사장, 장충단공원 이렇게 딱 특정한 장소에 그 집회를 열어서 군중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집회였는데 출발 이공삼공(2030) 물결유세는 유세차를 컨테이너죠. 컨테이너 박스 차에 연단, 이른바 무대를 연단을 설치해서 그냥 차를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 많은데 대놓고 거기서 현장에서 즉석 유세를 하는. 그게 이제 최초의 유세 방식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후보 유세단이 하나 굴러 가고 그 다음에 청년특별위원회에서 노무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시 이해찬, 이부영, 이정구, 이철 뭐 이런 분들 김민석, 이른바 이 그 젊은 층들, 또 국민들에게 신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스타급들의 정치인들을, (이들)과 함께 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를테면 영등포역 앞에 또는 종각에, 대학로에 또는 뭐 신림사(4)거리에 또는 명동 골목, 명동 이 그 거리 유세, 일종의 거리 유세를 한 겁니다. 지금 이제 후보들이, 모든 후보들이 차에다 연단을 만들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 출발이었습

2) 1992년 10월 23일 민주당 청년특별위원회(위원장 노무현) 주최로 서울 잠실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출발 20~30대 물결행사’ 등 젊은층을 겨냥한 문화제를 개최하는가 하면 즉석무대로 활용할 수 있는 트레일러를 이용해 전국 10여개 지역을 순회하는 소규모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20~30대 물결’이라는 부제를 달고 이철, 노무현, 이해찬, 김민석 등 소장파가 대거 연사로 참여하는 유세단 활동이 선거기간 동안 활발했다. 경향신문, 1992.11.2 한겨레신문, 1992.11.30 등 참고

니다. 그게. 사실 선거문화를 바꿔놓은 셈인데 그게. 그때 청년특별위원회에서 청년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이해찬 당시 이제 저 당에 기획위원장이 이해찬 의원이셨는데 당무기획실하고 청년특별위원회하고 같이 그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대통령선거에서 그 물결유세가 획기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 선거에 거의 뭐 일(1)등공신이라고 할 만큼, 나중에 김대중 후보도 정계를 은퇴하면서 까지도 노무현 의원, 노무현 위원장, 그 다음에 뭐 김정길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어쨌든 청년특별위원장을 맡으셔서 대통령선거를,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 어떤 분들보다도 열심이셨고 또 성과도 거뒀고 선거문화도 결과적으로 바꿔 놓은 거죠. 그 선거유세 방식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 구술자 주요 이력

1962. 전남 순천 출생

1989.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4. 국민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992. 원외 정치인 노무현 비서로 정계입문

1993.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연구원

2002.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정무보좌 및 의전팀장

2003.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정무비서관

2004.05 제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전남 순천)

2008.05 제18대 국회의원(통합민주당, 전남 순천)

2008. - 2011.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09. - 201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2010. - 2011.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정치인 노무현의 비서로 인연을 맺었다. 1993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거쳐 그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과정과 이후 2002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역정을 함께했다. 재임기에는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을 역임했으며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재선의원이 됐다.